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20.(금) 11:00 < 10.21.(토) 조간 > 배포 2023. 10. 20.(금)

석유화학 위기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

- 석유화학 민관합동 비상대응협의체 출범식 열려
- 석유화학 위기극복과 친환경·고부가 전환 방안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 20.(금)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석유화학협회가 참석하는 민관합동 비상대응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S-OIL, LG화학, 한화솔루션, 한화토탈에너지스 참석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세계(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과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플라스틱 규제 등으로 근본적 사업 혁신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비상대응협의체에서는 수출 회복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23년 상반기 석유화학 수출은 2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 나프타 분해시설(NCC) 가동률도 71%로 전년 대비 △16%p 감소

이날 출범식에서 산업부와 참석기업들은 ▲ 나프타 조정관세 영세율 적용 등 비용 절감 방안, ▲ 고부가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① 첨단소재 해외 원천기술 확보 ② 대형투자 사업(프로젝트) 적기준공 ③ 탄소 감축(저감) 및 플라스틱 친환경 전환 방안, ▲ 석유화학 산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석유화학 산업 수출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장영진 1차관은 "현재의 업무 현황 부진이 경기 변동적 요인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여건 변화에서 함께 기인한 만큼, 단기적 위기극복 방안 외에도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혁신방안을 장기적 시작에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발족한 협의체를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삼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기업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소명희 (044-203-49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